

안성초 재학생들, 개교 100주년 기념위해 돼지 저금통 모아

내달 12일 개최 기념행사에 쓰여질 예정

알록달록 돼지 저금통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저금통은 안성초등학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학생들이 모교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학생회 회의에서 공연을 준비해 보자는 의견과 함께 생각해 낸 것이 선배들의 뜻을 같이 하고자 저금통을 준비했다.

이렇게 모인 저금통은 오는 10월 12일에 열릴 안성초 100주년 기념행사에 쓰여질 예정이다. 안성초에 재학중인 서모(6학년) 학생은 "100주년 행사를 위해 친구들과 모여 회의를 하던 중 공연을 준비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과정에서 더 뜻깊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 돼지 저금통을 모아 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친구들도 함께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안성초등학교는 1919년에 개교하여 2019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다.

안성초교는 어언 100년이란 역사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것이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100년이란 전통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안성초는 선배, 후배 동문들 모교에 모여 유구한 역사를 기념한다.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는 모교발전과 동문들의 행복한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기금모금에서부터 다양한 행사



안성초등학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돼지 저금통을 모았다.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안성초 100주년 추진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은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음을 담아 모은 이 돼지저금통은 역사관을 건립해 보관할 것이다"며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안성 꿈나무들을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양성해주고 지역의 영원한 버팀목으

로 성장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성초 황형주 교장은 "재학생 돼지 저금통은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재학생들이 선배들의 정통을 이어받아 작지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특별한 걸 하고 싶었던 같다"고 설명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농협, 전북지방경찰청 감사패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따뜻한 세상, 희망의 삶' 나눔 보고회에서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범죄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3년 전북지방경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사회적약자 통합지원단"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재도 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당북초, 지역연계 예술활성화공연 성료

군산 당북초등학교는 24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지역연계 예술활성화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에서 당북초 학생들은 1년간 준비한 학년별 다양한 공연 및 국악관현악단과 각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 도내 유명 예술전문가들을 초청해 품격 있는 무대도 꾸몄다. 창작 관소리를 시작으로 유치원 학생들의 창작무용, 1학년의 민요, 2학년의 관소리, 3학년의 난타 및 설장고(상모놀이), 4학년의 사물놀이, 5~6학년 남학생들의 버나놀이, 5~6학년 여학생들의 삼고무 및 전통무용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년별 무대를 꾸몄다. 또한 당북나래국악관현악단에서는 국악 관현악곡 '소리놀이 1+1'과 국악강사들과의 협연으로 '신모듬'을 선보였다.

지역연계 예술활성화공연으로는 비보이그룹 '라스트포인'과 풍물놀이패 '동남풍', 그리고 '군산우도농악보존회'가 함께 공연에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장수사와 농가 돕기 앞장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가을 장미와 태풍 등으로 사과 출하시기를 놓쳐 가격이 폭락,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 사과농가를 돕기 위해 최근 장수사와 230박스(1박스 10kg)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구입한 사과는 전북 체육의 명예를 걸고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전해진다.



/장은성 기자

국민연금공단, 제21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5일 '제21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기업·시민단체 등에서 제출한 사례를 1차 서면 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총 1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후 현장 심사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훈격이 결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자체·주민 등 지역 구성원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적격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에 선정됐다. 공단은 이번 수상 사례 발표를 통해 공단의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공단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구성원·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류근태 LX상임감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대상' 수상

류근태 한국감사협회장(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이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자랑스러운대한민국대상'에서 사회공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국민대상"은 대한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사회 각 계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그간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경영혁신, 인재육성, 사회봉사, 과학기술발전, 정치발전, 환경개선 등에 헌신한 각 분야의 숨은 일꾼들에게 수여됐다. 류 협회장은 2020년 9월 개최예정인 '아시아 감사인대회' 성공개회를 통한 CI 지수 세계 20위권 달성과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가치 아래 협회 중심의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세계감사인대회 유치를 위해 역대 최대의 감사인단을 이끌고 '2019년 세계감사인대회(에너하임대회)'에도 참여한 바가 있으며, 그간 "자랑스러운 청백리상"과 "사회가치실현대상"을 제정·시행하는 등 국가 청렴도 향상과 협회원의 사회가치실현을 적극 장려·지원하고 있다. 류 협회장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영예를 안았다.

/김윤상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가 공간정보 및 지적(地籍)발전, 대학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원광대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맹수 총장과 최규명 본부장을 비롯해 김윤철 원광대 산학협력단장, 토목환경공학과 남궁문, 정용 교수, 채규호 LX전북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김원준 국토정보사업처장, 최규태 운영지원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간정보 및 지적발전을 위해서 대학 인재 육성과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 컨설팅 구성·운영 및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학술 및 기술정보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신=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 22:48 (서노출중)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양신구 기린대로 222 4층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3088-66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임수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02-0965	정읍지사 538-3087
효지사 010-8845-9855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2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